

떠오르는 마그레브 시장 이렇게 공략하라

kotra
Korea Trade-Investment
Promotion Agency



CONTENTS

목 차

요 약 / 1

I. 왜 마그레브인가? / 3

- 3 1. 마그레브 개요 및 시장규모
- 4 2. 마그레브를 주목해야 하는 이유

II. 현지 진출 환경 / 11

- 11 1. 마그레브 4개국의 강약점 분석
- 12 2. 마그레브 4개국 투자환경
- 19 3. 주목되는 주요 정부정책

III. 산업구조 및 외국기업 진출 유망분야 / 21

- 21 1. 마그레브 4개국 산업구조 및 특성
- 24 2. 외국기업 진출 유망분야

IV. 경쟁국 진출 동향 및 진출 성공사례 / 28

- 28 1. 경쟁국 진출동향
- 32 2. 진출 성공사례

V. 우리기업 성공 진출 방안 / 35

- 35 1. 경제통합, 유라비아 등장에 맞춘 장기적인 전략수립
- 35 2. 마그레브 정부의 개발계획 및 제조업 육성방안 활용
- 36 3. 현지기업 혹은 유럽기업과의 전략적 제휴 모색
- 37 4. 건설 및 건설장비 시장 진출
- 37 5. 자원부국에 한국의 압축성장 경험전수

요 약

과거 마그레브 지역은 정세불안과 미국의 경제제재, 과도한 공공부문과 극심한 비효율성이 만연한 폐쇄적 경제구조, 30%에 육박하는 높은 실업률, 낮은 외국인 투자유치로 세계 속의 저성장 지역이었다.

그러나 이 지역은 정세가 안정되면서 시장개방 정책을 펴고 있고, 풍부한 인적, 물적 자원을 바탕으로 세계 경제의 침체에도 불구하고 외국인 투자액이 지속적으로 증가하였고, IMF는 2008년 이 지역 평균 경제성장률을 6.4%로 발표한 바 있다. 아울러 우리기업의 대 마그레브 수출도 2007년 이후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다.

특히 지중해를 둘러싼 유럽 국가와의 지리적 근접성을 기반으로 EU와의 경제통합 분위기가 고조되고 있으며, 이에 풍부한 에너지 자원, 저렴한 인건비로 동유럽을 대체할 만한 생산기지로 주목 받으며 에어버스사, 르노자동차 등 기업 진출이 활발하다. 더욱이 장기적으로 서유럽과 아랍국가들간 유라비아로 통합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진출 전망을 더욱 밝게 하고 있다.

이들 정부는 정책적으로 ▶고실업 해소 및 산업 다각화를 위해 제조업 육성 ▶비효율적인 공기업의 민영화 ▶부족한 사회 인프라 구축 및 낙후된 인프라의 현대화 ▶국가 발전을 위해 외국인 투자가 절실히 필요하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외국인투자법 개정 및 각종 세제 혜택을 부여하며 적극적인 외국인 투자유치 정책을 펼치고 있다.

〈마그레브 4개국의 강약점〉

	강점	약점
알제리	- 석유, 천연가스 등 자원 부국임 - 경제 개혁·개방 정책의 시행 - 석유·천연가스의 수출 시장으로 유럽 확보	- 석유부문에 대한 경제 의존도가 높음 - 예산 낭비로 국고지출이 비탄력적임 - 높은 실업률로 인한 사회적 갈등
모로코	- 정치안정, 지리적 장점, 관광지로서의 잠재성 - 거시경제 구조 강화, 경제 다변화 가속화 - 낮은 해외부채로 국가신용도의 상승 - 금융 체계의 강화로 사업 환경 개선	- 농업부문에 있어서 취약성을 보임 - 민간부문의 금융 상황이 취약 - 빈곤층과 높은 청년 실업률
튀니지	- 정치, 금융면에서 국제 사회의 신뢰를 얻고 있음 - 교육과 진보적 사회 시스템은 중산층의 출현을 촉진시킴	- 유럽의 수요, 관광 및 기후상태 등 외부 요소가 국가경제활동을 좌지우지 - 계약 불이행 대출로 금융부문의 부진 - 청년 인구의 30%에 달하는 실업률
리비아	- 석유와 가스의 높은 보유량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있음 - 투자유치를 위해 경제개방화를 공약 - 낮은 해외부채로 금융상황이 양호함	- 석유부문에 대한 경제 의존도가 높음 - 방만하고 비효율적인 공직과 적합한 법적·경제적 구조 부재 - 통치 체제의 비효율성

알제리는 1990년대 내전으로 낙후된 철도망등 인프라의 현대화를 추진하고 있어 건설, 특히 건축자재 분야가 진출 유망하고, 최근의 고유가에 힘입어 정부재정은 탄탄한 상태로 특히 5개년 철도개발계획(2005-2010)에 180억불이 투입됨에 따라 각국 관련 기관간 치열한 경쟁이 예상된다. 아울러 현지 저렴한 석유가격을 활용한 석유화학분야도 진출 유망하다.

모로코는 전력사용 증가로 인한 발전소 건립, 관광휴양지 조성을 위한 건설 프로젝트가 진출 유망하며, 특히 탕헤르 자유무역지대에 공업단지를 조성하기 위해 각종 세제 혜택을 제공하고 있으니 진출지로 고려해 볼만하다.

튀니지는 공교육에 대한 과감한 투자로 아프리카 최고의 인적자원을 보유하고 있는 반면, 상대적으로 인건비가 높은 투자환경을 가지고 있다. 유망진출분야는 전기전자, 통신, 자동차부품 등의 제조업과 통신, 고속도로, 항만, 공항 등 SOC 분야, 그리고 호텔 건설 등이며 수입 의존도가 높은 의료기기 및 포장 기계류에 대한 진출도 유망하다.

마그레브 최대 산유국인 리비아는 비석유분야에 대한 투자진출은 저조한 편이나 사회 인프라 구축에 많은 예산을 투입할 계획이므로 시멘트분야 및 중소형 제조공장 투자에 각종 인센티브를 지원하고 있으니 이 분야 진출이 유망하고, 2004년 미국의 경제제재 해제 이후 인프라 구축을 활발히 전개함에 따라 공항 및 항만, 발전소, 상하수도, LNG 및 정유공장시설 등 다양한 프로젝트가 계획되어 있으며 기타 호텔 신축 등 관광분야 진출도 유망하다.

마그레브 시장에 우리기업이 성공적으로 진출하기 위해서는 ▶우선 장단기적으로는 마그레브와 EU간 경제 통합과 유리비아 시장 등장을 염두에 둔 치밀한 진출전략 수립이 필요하며 ▶마그레브 정부가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는 공기업 민영화 및 제조업 육성 정책을 활용하고 ▶마그레브에서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 현지기업 혹은 유럽기업과의 전략적 제휴 모색해 볼 필요가 있다. ▶또한 인프라 구축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만큼 건설 및 건설 장비분야 진출을 고려해 볼만하고, ▶이들 국가가 경제 발전 모델을 찾고 있는 만큼 한국의 압축성장 경험을 전수하며 그들이 절실히 원하는 설비를 제공하고 우리에게 필요한 석유·가스 개발 프로젝트에 진출하는 방안을 강구해 볼 수 있다.

I. 왜 마그레브인가?

1. 마그레브 개요 및 시장규모

□ 마그레브 개요

- 마그레브(Maghreb)는 '동방의 아랍 여러 나라'를 뜻하는 '마슈리크'에 대응하는 아랍어로 '일몰(日沒)의 땅' 즉 '서방의 아랍 여러 나라'를 뜻하며 마그리브라고도 함.
- 통상 아프리카 북서부의 튀니지·알제리·모로코를 총칭하며 넓은 뜻으로는 리비아·서(西)사하라의 모리타니를 포함하기도 함. 본 보고서에서는 경제규모를 감안하여 마그레브를 알제리, 모로코, 튀니지, 리비아 4국으로 한정하였음.

□ 시장규모

- IMF에 따르면 2007년 북부 아프리카를 포함한 중동의 경제규모는 2조 1,003억불이며 이중 마그레브 4개국의 경제규모는 3,009억불로 중동경제의 14.3% 차지함.
- 아프리카의 측면에서 보면, 2005년 아프리카의 경제규모는 9,289억불이며, 이중 마그레브 4개국의 비중은 23.1%로 약 3,070억불을 기록하였음.

〈2007년 마그레브 4개국 국가 개황〉

구 분	알제리	모로코	튀니지	리비아
국토면적(만 km ²)	238.17	44.66	16.36	175.95
인구(백만 명)	33.3	33.8	10.3	6.0
• 0~14세(%)	27.2	31.0	24.0	33.4
• 15~64세(%)	67.9	63.9	69.2	62.4
• 65세 이상(%)	4.8	5.1	6.9	4.2
인구증가율(%)	1.22	1.53	0.99	2.26
GDP(U\$ 억불)*	1,308.0	690.1	350.1	565.0
실질경제성장률(%)*	4.8	2.2	6.3	6.8
1인당GDP(PPP기준)*	7,737	3,759	7,332	15,328
외채(U\$ 억불)	40	163	208	48

주 : *는 추정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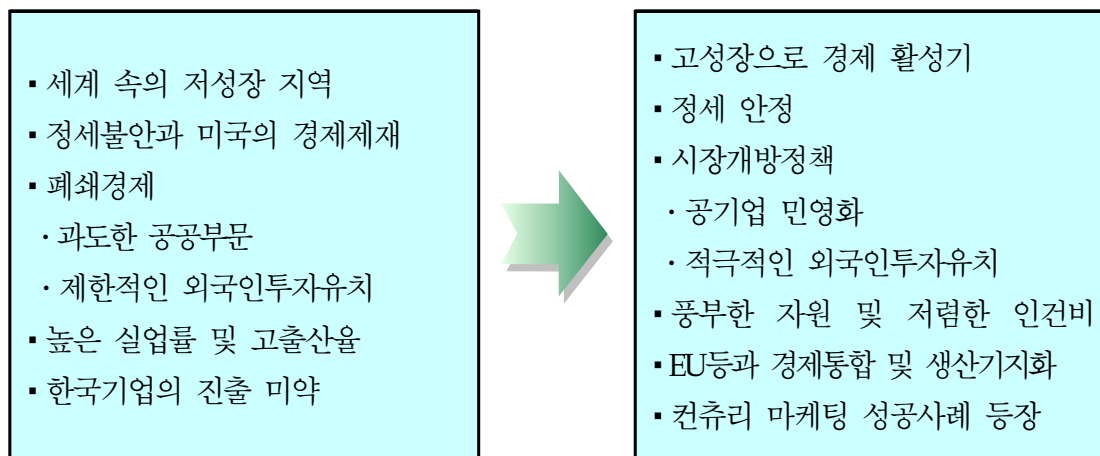
자료원 : EIU, CIA

※ 아랍 마그레브 연합(Arab Magreb Union)

- 아랍 마그레브 연합은 북부아프리카 지역의 알제리, 모로코, 튀니지, 리비아, 모리타니 5개국의 연합체로 모로코와 튀니지가 프랑스로부터 독립하던 1956년 제안하여 1989.2월 협정을 체결하였음.
- 설립 목적은 AMU 회원국간 경제협력 강화 및 지역 경제 통합에 있었으나 1990년대 모로코와 알제리간 서사하라 영토 분쟁으로 인하여 AMU의 협력은 중단되었으며, 협정은 명목상으로만 존재하여 왔음.

2. 마그레브를 주목해야 하는 이유

〈변화하는 마그레브 시장〉



□ 세계 경제의 스태그플레이션 우려에도 불구하고, 마그레브 경제 고성장 전망

- 미국의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와 사상 초유의 고유가로 인해 2008년 세계 경제가 침체 국면을 맞고 있는 가운데, 마그레브의 경제는 안정적인 성장세를 이어갈 전망이다.
- IMF가 2008년 세계 경제 성장 전망치를 3.7%로 발표한 반면, 마그레브 국가는 6.0%의 경제 성장률을 달성할 것으로 전망하였고 특히, 리비아의 경우 세계 평균 성장률의 2배가 넘는 8.8%의 높은 경제 성장률을 달성할 것으로 전망하였음.

〈마그레브 국가의 실질 경제 성장률〉

(단위 : %)

국가	1990~2000*	2006	2007	2008	2009**
알제리	3.5	2.0	4.8	4.9	6.0
모로코	3.3	8.0	2.2	6.5	5.5
튀니지	4.5	5.5	6.3	5.5	5.6
리비아	2.2	5.2	6.8	8.8	7.6
마그레브	3.4	5.2	5.0	6.4	6.2
전세계**	-	5.0	4.8	3.7	3.8
OECD**	-	3.1	2.8	1.7	1.9

*는 연평균 수치임

자료원 : IMF, **는 EIU 6월 자료임.

□ 적극적인 외국인 투자유치로 FDI 유입액 지속 증가

- 마그레브 국가는 풍부한 에너지 자원과 지중해를 가운데 둔 유럽과의 지리적 근접성을 바탕으로 최근 FDI(Foreign Direct Investment) 유입액이 급증하고 있음.
- UNCTAD에 따르면 2004년 아프리카의 총 FDI(Flow 기준) 유입액 18,018백만불 중 마그레브 4개국은 2,182백만불을 기록해 12.1%를 차지한 반면, 2006년은 아프리카 전체 유입액 35,544백만불 중 9,739백만불을 기록하면서 27.4%를 차지해, 비중이 2004년 대비 약 2.3배 증가하였음.

〈최근 FDI 유입액 및 증가율 현황〉

(단위 : 백만불, %)

국가	2004	2005		2006	
	금액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알제리	882	1,081	22.6	1,795	66.0
모로코	1,070	2,933	174.1	2,898	-1.2
튀니지	584	639	9.4	3,312	418.3
리비아	-354	261	173.7	1,734	564.4
마그레브합계 (아프리카 비중)	2,182 (12.1)	4,914 (16.6)	125.2	9,739 (27.4)	98.2
아프리카	18,018	29,648	64.5	35,544	19.9
개도국	275,032	334,285	21.5	379,070	13.4
전세계	710,755	916,277	28.9	1,305,852	42.5

자료원 : UNCTAD, "World Investment Report 2007", "Fact Sheet"

- 특히 2005~2006년도 마그레브 지역의 FDI 유입액은 전년대비 각각 125.2%, 98.2%로 증가하여 전 세계 평균 증가율인 28.9%, 42.5%보다 약 2~4배 높으며, 특히 개도국 평균 증가율인 21.5%, 13.4%보다 6~7배 높은 증가율을 보이고 있음.

□ 풍부한 천연자원, 넓은 영토, 풍부한 노동력 보유

- 알제리, 리비아는 아프리카 최대 원유 및 천연가스 생산국인 반면, 모로코, 튀니지는 지중해성 기후에 속하면서 역사·문화적으로 풍부한 관광자원을 갖추고 있음. 최근 알제리의 정치 안정, 리비아의 경제제재 이후 알제리, 리비아도 관광산업 육성을 위해 힘쓰고 있음.
- 과거 마그레브 국가의 높은 출산율 및 실업률은 높은 사회유지 비용의 발생을 불러와 국가 경제 발전에 저해 요소가 되어 왔으나 최근의 적정수준의 출산율과 높은 경제성장률로 실업률이 안정화되는 추세임.

※ 마그레브의 실업률

- 알제리의 2000년 실업률은 30%를 육박, 공공부문에 대한 고용증대 및 높은 경제 성장으로 2006년도 12.3% 수준을 유지하고 있음.
- 모로코는 2004년 평균 실업률은 11%인 반면 시골과 도시의 실업률이 각각 3.2%, 18%로 나타나 실제 도시 인구의 실업률은 상당히 높음.
- 튀니지의 2007년 실업률은 14.1% 수준이며, 대학졸업자의 고학력 젊은층이 주요 실업계층임.
- 리비아는 공식적인 통계가 발표되고 있지 않으나 약 30%에 이를 것으로 추정됨.

□ 유라비아 신유럽 등장(Eurabia and New Europe)

- Megatrends Europe는 서유럽과 마그레브가 융합하여 유라비아가 생기고 구 동유럽은 비이슬람적인 신유럽으로 부활할 것이라 예견하고 있음.
- 향후 소수 영향력 있는 이슬람교 젊은이들이 서유럽 경제와 문화의 주춧돌 역할을 하고, 서유럽은 정부형태가 아니더라도 북아프리카, 터키와 경제적, 정치적 문화적으로 결탁할 것으로 예측함.

- 현재 EU내 모슬림 인구는 EU 전체 인구의 4%인 2천만명에 달하고 있고, 터키의 EU 가입시 그 비중은 17%로 확대될 전망이며, 2025년 모슬림 인구는 유럽 전체 인구의 10%를 차지할 것으로 전망됨.
- 프랑스는 1980년대 이후 모로코, 튀니지, 알제리로부터 유입 인구가 증가하여 이슬람교가 제 2의 종교세력으로 급격히 신장하고 있으며 현재 프랑스 인구의 약 5%인 약 500만 정도를 차지, 2020년 프랑스 인구의 20%를 차지할 것으로 예상됨.
- 특히 벨기에의 수도 브뤼셀의 모슬림 인구는 17%로 유럽 도시 중 가장 높은 비율을 나타내고 있으며, 약 70%가 모로코 출신, 약 20%는 터키, 나머지 10%는 알제리, 튀니지, 이집트 등의 북아프리카 출신인 것으로 나타났음.

□ 경제 통합 가속화

- 마그레브등 북아프리카 지역은 로마시대 로마제국의 속주로서 지배를 받았고, 7세기 이후 아랍 및 오스만투르크의 통치를 받았음. 그 후 19세기부터 프랑스, 이태리 등 유럽 열강의 식민통치를 겪어 양 지역간 문화적 이질감이 심하지 않으면서 EU와 인접하여 있어 경제 통합 가능성이 높음. 모로코는 미국과의 FTA를 체결하기도 하였음.
- Euro-Med Partnership : 1995년 EU와 지중해 연안 국가 사이에 체결한 것으로 바르셀로나 프로세스¹⁾(Barcelona Process)라고도 함. 2010년까지 EU와 지중해 연안국가간 자유무역지대 설립을 목표로 하고 있음.
- 바르셀로나 프로세스 이후 EU와 마그레브 3국은 AA(Association Agreement: 준회원국 가입조약)를 체결하고 공산품 교역에 대한 단계적 관세 철폐를 시행하고 있음. AA 체결의 주 목적은 서비스 및 투자에 대한 자유화이나 아직 구체적인 협상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1) EU는 1995년 11월 바르셀로나 컨퍼런스에서 바르셀로나선언(Barcekone Declaration)을 발표하면서 유로-지중해 파트너십(Euro-Mediterranean Partnership)을 출범시켰음. 참여했던 지중해 연안 국가들은 알제리, 사이프러스, 이집트, 이스라엘, 요르단, 레바논, 몰타, 모로코, 팔레스타인, 시리아, 튀니지, 터키 모두 12개국이었음. 바르셀로나선언의 핵심은 2010년까지 EU와 지중해 연안국들간에 자유무역지대를 창설한다는 것임.

〈마그레브 국가의 AA 및 FTA 체결 현황〉

국가	대상국	추진현황
알제리	EU와 AA '05.9.월 발효	12년간 단계적 관세인하 2017년까지 완전자유무역지대(FTA) 설립 목표 - 유럽산 원자재와 알제리 내 설비용 반제품은 협정 발효 직후 전면 관세 철폐
모로코	EU와 AA '00.3월 발효	12년간 공산품(industrial goods)의 단계적 관세인하 2012년 완전 자유무역지대(FTA) 설립 목표
	미국과 FTA '06.1월 발효	- 공산품의 약 95% FTA 즉시 관세 철폐(농산물은 15년내 철폐) - 투자분야에 대한 내국민대우보장 - 금융, 통신, 보험 서비스 분야 개방 - 중앙정부 조달시장 참여시 하한금액 설정
	기타 FTA 체결국	- 터키와 FTA - '06.1.월 발효 - UAE와 FTA - '03.7월 발효 - Arab-Mediterranean와 FTA - '07.3월 발효
튀니지	EU와 AA '98.3월 발효	2008.1월 상품부문에 대한 FTA 시행 - EU측은 '98.3월 튀니지 상품의 EU 시장내 무관세 혜택을 부여, 튀니지는 EU 상품에 대해 매년 관세인하 및 무관세제도 시행.
	Agadir협정 '07.3월 발효)	- 튀니지, 모로코, 이집트, 요르단 4개국간 체결 - 농산물에 대한 즉각적 관세 철폐 명시 * EMFTA(유럽-지중해 자유무역지대)에 내에서 남남협력을 통해 EMFTA 통합을 가속시키는 장치로 간주, EU의 지원을 받고 있음.
	미국과 TTTA 체결 '02.10월	2003.10월 첫 카운슬 미팅을 가졌지만, 이렇다할 진전 없었음.
리비아	1999년 이후 바르셀로나 프로세스의 옹저버	

- 2007.5월 프랑스 사르코지 대통령이 지중해권 국가간 협력을 목적으로 하는 Mediterranean Union을 제안하였으며 프랑스, 남유럽, 북아프리카 중동의 국가를 EU처럼 통합하자는 구상임. (2008.7월 지중해 연합 첫 정상회의 개최 예정)
- EU 내에서는 독일의 반대, 그 외 리비아, 터키, 이스라엘 등의 이견차이를 좁히지 못해 실질적인 협력에 난항을 겪고 있음.

- 모로코는 중동에서 3번째로 미국과 FTA를 체결하였으며 미국으로부터의 투자 유치 및 모로코 수출주력상품인 섬유 및 피혁의 미국 수출 증대를 기대하고 있음.

□ EU 시장 생산기지화 조짐

- EU 진출을 위해 동유럽에 공장을 설립한 외국투자기업들이 동유럽의 높은 인건비 및 잦은 노사분규로 고전을 면치 못하면서 지리적으로 EU와 근접해 있으면서 인건비가 저렴한 마그레브를 신규 투자처로 주목하고 있음.
- 2006년 에어버스사가 모로코에 부품공장을 설립함으로써 모로코의 항공우주 산업이 본격화되었으며, 르노자동차가 Tangetmr에 약 10억유로를 투자하여 연 40만대의 자동차 생산 공장을 설립하는 등 동구권보다 앞선 투자지역으로 각광을 받기 시작함.
 - 모로코는 대서양과 지중해가 접하는 요충지의 배후단지에 위치하여 항구 (Tanger 신항)로의 접근용이, 물류비용 절감, 유럽 및 미국, 아시아로 진출이 용이하며, 인건비 또한 저렴하여 동구권보다 유리한 진출 조건을 갖추고 있음. 또한 연중 일조량이 많아 조업 능률이 높음.
- 최근 일본 기업들은 인플레이션이 뛰고 노사분규가 빈번해진 동유럽에서 공장을 철수하고 있음.
 - 동유럽에서 자동차용 와이어 하네스를 생산하고 있는 스미토모 전기공업도 현지 임금이 크게 오르자 공장을 북아프리카로 옮길 계획임.

□ 한국의 대마그레브 수출 증가세

- 한국의 대마그레브 수출은 최근 2007년부터 현재까지 급속한 증가세를 보이며, 한국의 수출증가율인 15.3%, 21.3% 보다 높은 47.8%, 31.9%의 높은 증가율을 보이고 있음.
- 특히 알제리는 양국정상의 교환방문(2003.12월 및 2006.3월) 이후 각료급 공동위 및 경험 T/F 정례 교환회의 등 경제 협력 분위기 활성화 및 급속한 수출 증가세 실현하여 한국의 아프리카 5대2) 교역국으로 자리매김 하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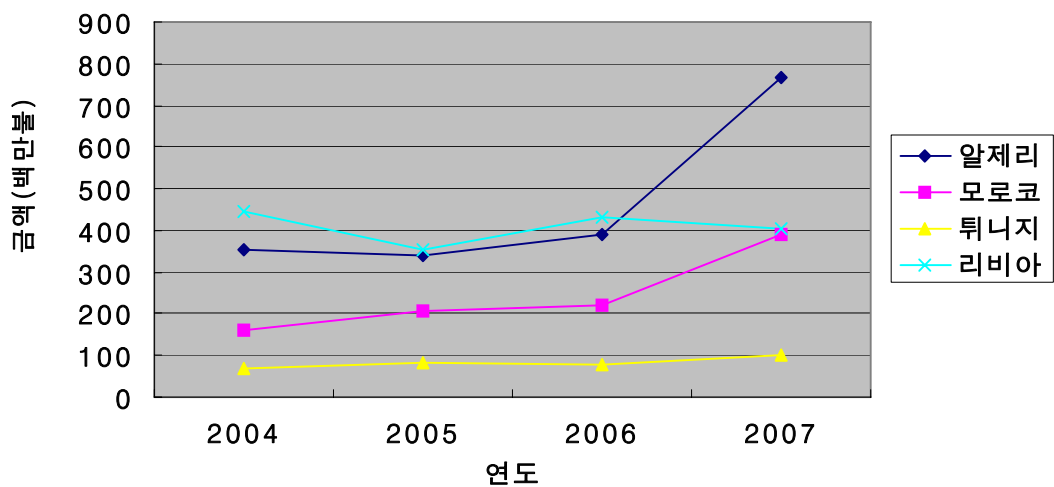
〈한국의 대마그레브 4개국 수출 추이〉

(단위 : 백만불, %)

국가	2004	2005	2006	2007	2008(1~4월)
	금액(증가율)	금액(증가율)	금액(증가율)	금액(증가율)	금액(증가율)
알제리	354.5(57.9)	340.2(-4.0)	390.6(14.8)	768.1(96.9)	337.8(17.7)
모로코	162.3(26.5)	207.9(28.1)	222.7(7.1)	390.3(75.2)	186.6(8.1)
튀니지	69.8(61.0)	80.4(15.1)	79.9(-0.6)	101.4(27.0)	51.8(47.8)
리비아	447.1(229.0)	354.7(-18.0)	433.6(18.9)	402.1(-7.3)	266.9(71.6)
마그레브 평균증가율	93.6	9.4	10.1	47.8	31.9
한국총수출 평균증가율	25.5	16.4	18.4	15.3	21.3

자료원 : KITA

〈한국의 마그레브 4개국 수출 추이〉



2) 아프리카 5대 교역국 : 남아공, 나이지리아, 라이베리아, 이집트, 알제리

II. 현지 진출 환경

1. 마그레브 4개국의 강약점 분석

국가	강약점
알제리	강점 ▪ 석유, 천연가스 등 자원 부국임. ▪ 경제 개혁·개방 정책의 시행 ▪ 유럽을 석유와 천연가스의 안정된 시장으로 확보함. ▪ 경제침체극복을 위해 설립된 석유안정화기금재단이 성장강화정책(Growth Consolidation Plan)을 재정적으로 뒷받침함. ▪ 재조정된 파리클럽의 부채 조기상환으로 석유 수입 감소에 대한 취약성 감소
	약점 ▪ 석유부문에 대한 경제 의존도가 높음. ▪ 국영기업의 방만한 운영이 예산 낭비로 이어져 국고지출이 비탄력적임. ▪ 높은 실업률로 인한 사회적 갈등이 개혁 이행에 걸림돌이 됨. ▪ 개선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취약한 기반시설과, 관료제의 잔재, 금융제도의 부실로 투자가 지연됨.
모로코	강점 ▪ 지리적 장점, 천연자원, 관광지로서의 무한한 잠재성, 정치적 안정 등의 요인으로 서구 국가들의 이목을 받고 있음. ▪ 주요 구조 개혁의 시행으로 거시경제 구조가 강화되고 경제요소의 다변화가 가속화됨. ▪ 낮은 해외부채로 국가신용도의 상승 ▪ 금융 체계의 강화로 사업 환경이 지속적으로 개선됨.
	약점 ▪ 농업부문에 있어서 여전히 취약성을 보임. ▪ 상당한 민간 부채 등 민간부문의 금융 상황이 취약점임. ▪ 빈곤층과 청년실업자들의 기대에 못 미치는 경제성장이 사회적 갈등 유발의 원인이 될 수 있음. ▪ 서부 사하라 문제의 미해결이 알제리와의 관계에 악영향을 미쳐 지역 통합으로부터 얻을 수 있는 이익을 감소시킴.
튀니지	강점 ▪ 경제 다각화 및 자유시장경제를 채택하여 국제사회에서 정치, 금융면에서 신뢰를 얻고 있고 국제 자본시장으로의 진입 등 안정적인 모습을 보여 왔음. ▪ EU와의 파트너십 협정은 산업, 인프라, 그리고 금융 분야에서 튀니지의 경제에 점진적인 발전을 촉진시키고 있음. ▪ 교육과 진보적인 사회 시스템 구축은 사회적 불평등을 줄이고 역동적인 중산층의 출현을 촉진시키고 있음.
	약점 ▪ 제한된 천연자원으로 인해 유럽의 수요, 관광 및 기후상태 등 외부적 요소가 국가경제활동을 좌지우지 함. ▪ 2005년 경제 개방과 섬유 협정 이래 산업 생산품의 경쟁력 제고와 다각화를 위한 노력의 가속화가 요구됨. ▪ 계약 불이행 대출의 높은 비중으로 금융부문의 부진(2005년 말 기준 21%) ▪ 근로가능인구 14%와 청년 인구 30%에 달하는 높은 실업률
리비아	강점 ▪ 미국의 경제 제재로 수년간 제약을 받았던 생산능력이 석유와 가스의 높은 보유량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있음. ▪ 개혁의 속도는 느리나 투자유치를 위해 정부가 경제개방화를 공약함. ▪ 낮은 해외부채와 장기부채의 안정으로 금융상황이 양호함.
	약점 ▪ 경제가 다각화되지 못하고 석유 시장 변화에 취약함. ▪ 방만하고 비효율적인 공직과 적합한 법적·경제적 구조의 부재로 투자가 지연됨. ▪ 통치 체제의 비효율성이 국가 발전의 걸림돌로 작용함.

자료원 : Coface, "The Handbook of Country Risk 2007~2008"

2. 마그레브 4개국 투자환경

가. 국제기관의 투자환경 평가

□ World Bank

- World Bank에 따르면 모로코는 외국 기업의 사업 환경 개선 정도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나고, 알제리는 더딘 속도로 진전되고 있으며, 튀니지는 향상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 2007년 개혁의 가장 큰 성과는 중동과 북아프리카 국가에서 나타났으며, 튀니지는 법인소득세를 35%에서 30%로 하향조정하였음.
- 모로코는 1개 혹은 복수의 민간 신용평가부서(Private Bureaus) 설치를 위한 입찰 절차 관련 법률을 제정하였음.

〈마그레브 3국의 기업하기 좋은 여건 개선 사항(2007년도 기준)〉

구분	알제리(125위)	모로코(129위, +8위)	튀니지(88위, -5위)
창업			
인허가 처리		↑	
고용			
소유권 등기		↓	↑
은행융자			↑
투자자 보호			
납세			↑
대외무역	↓	↑	
계약이행			
폐업			

주)리비아 통계자료 부재, * ↑ : 개선, ↓ : 쇠퇴

자료원 : World Bank, "Doing Business 2008"

□ 미국의 Heritage 재단

- 미국의 Heritage 재단에서 155개국 대상으로 조사한 2008년 Economic Freedom Index에 따르면 알제리, 모로코, 튀니지 3국은 2005년 대비 각각 20위, 25위, 21위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음.

〈마그레브 4개국의 경제자유도 지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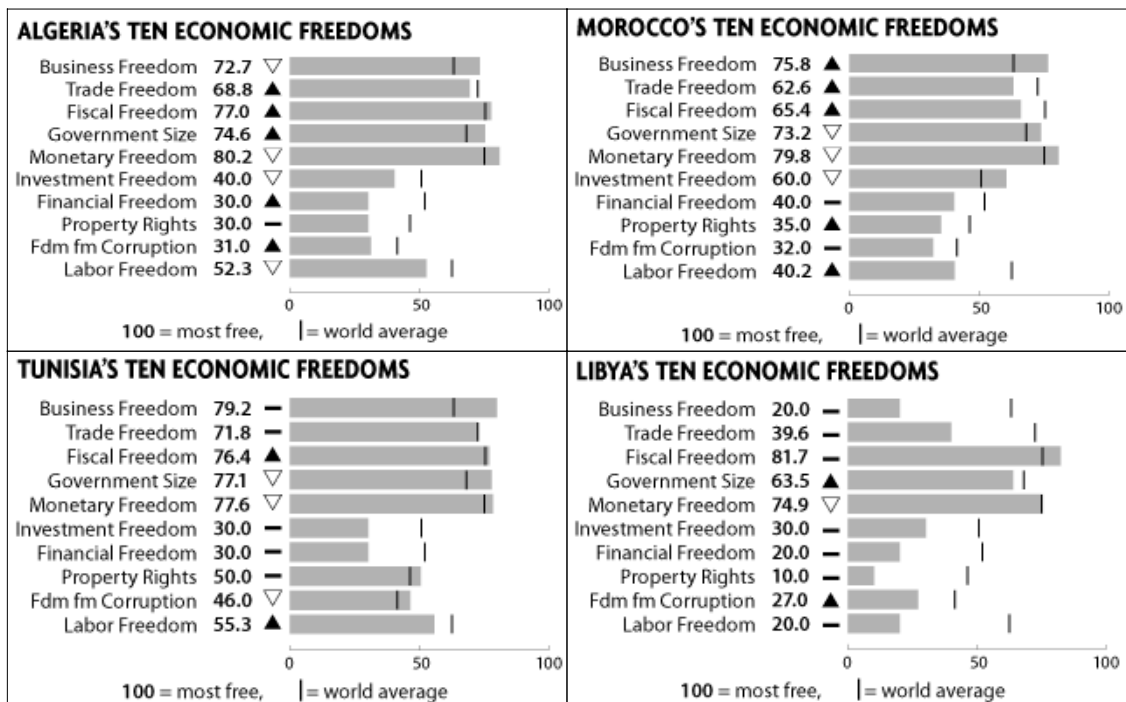
(단위 : 순위)

국가	2005	2006	2007	2008	2008점수
알제리	122	107(+5)	108(+1)	102(+6)	55.7
모로코	123	133(+10)	94(-11)	98(-4)	56.4
튀니지	105	98(+13)	80(-2)	84(-4)	59.3
리비아	154	155(-1)	154(+1)	154	38.7

자료원 : Heritage "Economic Freedom Index 2008"

- 세부항목별로 보면, 10개 항목 중 알제리는 Business Freedom, Monetary Freedom, Government Size의 3개 항목에서 평균 이상의 점수를 받았고, 모로코는 여기에 더하여 Investment Freedom까지 4개 항목, 튀니지는 10개 항목 중 7개 항목에서 평균 이상의 점수를 얻은 반면, 리비아는 Fiscal 및 Monetary Freedom 2개 항목에서 평균 이상의 점수를 얻었음.

〈마그레브 4개국의 경제자유도 지수 세부항목별 점수〉



자료원 : Heritage "Economic Freedom Index 2008"

나. 외국인 투자유치 정책 개요

- ※ 마그레브 국가는 국가 발전을 위해 외국인 투자유치가 필수라고 인식하고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외국인 투자유치 정책을 추진하고 있음.
- 이전의 외국인투자는 국가 인프라로 연결되지 않고 단기수익을 낼 수 있는 분야에 집중되었으나 최근에는 국가 기간산업 분야의 투자유치가 활발함.

□ 알제리

- 선진기술 및 노하우 전수는 물론 자국 내 고용창출, 수입대체 효과, 산업화 달성을 목표로 외자유치 확대에 주력하고 있으며, 알제리 국내정세가 어느 정도 안정기에 들어선 2000년 이후부터 외국인 투자가 점진적으로 활기를 띠기 시작함.
- 최근 석유·가스 이외 분야에 대한 외국인 투자가 확대되고 있으며 2004~2006년 최근 3년간 외국인 투자는 289개로 총 72억 4000만불의 투자가 실현되었고 부문별로는 제조업 및 정보통신 분야에 대한 투자가 높게 나타났음.
- 1990년대 10여년간의 내전(군부와 이슬람 원리주의자간)으로 낙후된 인프라에 대한 현대화를 추진하고 있고 이 분야에 대한 외국인 투자유치에 적극적이며 최근 석유·가스 가격 상승으로 인프라 구축을 위한 정부자금은 확보된 상태임.
- 1990년대의 알제리 내전 기간 중 방치되어 노후화한 철도망을 현대화하기 위한 5개년 철도 개발계획(2005-2010년)에 180억불이 투입됨에 따라 각국 관련 기업간 치열한 경쟁이 예상됨.
- 직접투자 시 MPPI(민영화투자유치부) 및 산하기관인 ANDI(알제리투자청)을 적극 활용

□ 모로코

- 만성적인 무역적자로 인한 외환부족 및 높은 실업률 해소를 위해 외국인 투자 유치를 적극 추진하고 있으며 특히 1992년 이후 대대적인 민영화 사업을

추진하여 전력 및 통신서비스 등 국가 전략산업에 대한 민간기업의 참여를 허용, 미국등 외국기업의 진출이 활발함.

- 최근의 주요 외국인 투자유치 분야는 관광, 제조업, 부동산, 금융 등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특히 관광, 부동산은 전체 투자규모의 50%를 차지하고 있음.
- 최근 4~5년간 모로코의 부동산 가격이 폭등하여 2006년 부동산 부문의 투자 규모가 2000년에 비해 7배 상승하였음.
- 유럽과 최단거리에 위치한 항구 도시 탕헤르(Tanger)에 자유무역지대를 건설 중이며 이곳을 외국기업의 주요 투자지역으로 육성하기 위해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음.
- 탕헤르 자유무역지대 투자자들에 대해 최초 5년간 법인세, 소득세 전액면제, 5년 이후 법인세의 8.7%만 부과(정상 법인세 : 35%)하고 또한 및 저가의 대지를 제공하는 등 인센티브 혜택 제공
- 국내 자체 플랜트 생산이 전무한 바, 플랜트 분야 투자기업에게는 각종 혜택을 제공하고 있음.
- 부가세(20%)면제, 플랜트의 대금 지급시 총 금액의 40%까지 분할납부 허용, 품목에 따라 선급금을 2,600불까지 제한, 관련 제품 수입시 저렴한 수입관세 (0%-2.5%) 적용

□ 튀니지

- 튀니지는 교통, 통신, 전기, 에너지 수급 등 여러 면에서 타 중동 아프리카 국가에 비해 양호한 인프라 체제를 갖춘 것으로 평가되고 있음.
- 또한 GDP의 6-8%가 공공교육에 투입되어 25%의 튀니지인이 정규교육 혹은 직업훈련교육을 이수함으로써 아프리카 최고의 인적자원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받고 있는 반면, 인건비가 포르투갈 및 그리스 등과 유사한 높은 수준으로 투자의 단점이 되기도 함.

□ 리비아

- 리비아 투자에 관심이 높은 분야는 유전개발로 리비아는 2007년까지 200만 배럴을 생산하고 있으나 2010년까지 300만 배럴까지 끌어올릴 계획으로 이를 위해 총 350억불의 외국인 투자유치를 목표로 하고 있음.
- 리비아 석유부문 이외 제조업 및 관광분야에 대한 외국인투자유치를 적극 지원하고 있으나 아직까지 석유분야 이외의 투자액은 36억불로 미미한 수준임.(2008.2월 기준)
 - 제조업에 대한 외국인 투자유치 촉진을 위해 가동이 중단된 국영 제조업 공장에 외국인투자를 유치할 계획이며 국제 규격의 제품을 생산하여 일부는 내수에, 나머지는 수출에 활용하겠다는 목표를 세우고 있음.
 - 총 114개 국영기업에 대해 단계적으로 실사(실사완료 2009.1월)를 하고, 기업별로 국제입찰을 실시하여 외국인 투자를 유치할 예정이며, 국영 제조업 공장의 정상 가동에 필요한 총 투자액의 50%를 리비아 정부가 지원하고, 기타 저리 은행융자 등의 혜택을 제공하고 있음.
- 또한 소형 프로젝트에 대한 외국인 투자유치정책을 적극 추진하고 있음.
 - 최소 자본금을 50백만에서 5백만 디나르로 하향조정, 특히 리비아 파트너의 투자비율이 50%를 초과하는 합작투자인 경우에는 2백만 디나르로 대폭 하향 조정하였음.
 - 또한 투자 프로젝트 소요금액의 50%를 리비아 내 금융기관에서 조달 가능하도록 하였고, 이 분야의 외국인투자프로젝트에는 소득세, 생산세, 수입에 수반되는 각종 제세 등 각종 면세혜택을 부여하고 있음.

〈마그레브 4개국 국별 외국인 투자유치 정책〉

국가	투자유치제도
알 제 리	▪ 2001.8월과 2006.7월에 외국인투자법을 개정 · 내국인투자와 외국인투자간 차별 폐지(법적 동등대우 보장) · 투자자본 및 수익금의 송금보장 ▪ 투자인센티브 · 모든 부동산 거래에 대한 양도세 면제 · 투자 목적으로 수입하는 설비에 대해서는 낮은 관세율 적용 · 투자목적에 사용되는 재화와 용역에 대한 VAT 면제 · 투자의 일환으로 이루어지는 자산 취득에 대한 양도세 면제 · 법인세, 종합소득세, 급여세, 작업세, 부동산세 등 10년간 면제
모 로 코	▪ 국왕직속의 투자유치특별위원회 설치(2000년), 외국인투자유치제도 개선 · 50%로 제한하였던 외국인 자본참여 한도 제한 철폐 · 결제를 위한 디람화 태환 허용(1993년) 및 외환시장 창설 · 외국인에 대한 비차별적인 투자 현장 선포 ('95) · 재정, 금융, 은행 개혁 · 투자절차 대폭 간소화, 각종 투자인센티브 도입 ▪ 투자유치분야 : 기간 인프라 및 공익성 분야 일부만 제외하고 모두 오픈
튀 니 지	▪ 1993년 외국인투자법(New Investment Code) 제정, 수출기업에 유리한 투자여건 조성 ▪ 투자허용범위 : 국내 유통업(도매업), 농업, 부동산업 외에 투자제한 없음. ▪ 투자종류 · off-shore 기업: 생산의 80%를 수출하는 기업으로 외국인 지분 66~100%까지 소유 · on-shore 기업: 비제조업은 외국인 지분 49%로 제한, 제조업은 100%까지 소유 ▪ 투자인센티브 · off-shore 기업에 대해 수출이윤에 대한 세금 최초 10년간 면제, 이후 50% 면제 · 현지 조달 되지 않은 자본재 면세 수입 · 영업에 소요되는 원료, 반제품에 대한 내국세 및 관세 면제 ▪ 투자절차 : 산업별로 담당기관에 서류신고 제출(단, 관광, 수산업, 교통, 교육, 직업훈련, 통신, 보건, 영화의 경우 사전 승인을 요함.) ▪ 조세감면제도 · 튀니지 발생 소득에 대해 35-100% 감면, 11년 이후 최저 10% 세율 적용 · 수출기업 환경보호산업 등 특별, 특정 부분에 대한 각종 세제상 혜택 부여 ▪ 과실송금 : 자본금의 66%이상이 외화로 조달, 비거주자 소유시 off-shore 기업으로 간주, 대부분의 규제 면제됨.

리 비 아	▪ 1997년 외국인투자유치법, '98년 시행령 제정(2002년 시행령 개정) ▪ 세제상 혜택 · 사업 추진시 기계 및 장비에 대한 모든 관세 및 세금 면제 · 사업 운영시 부품, 비품, 원료에 대해 5년간 관세, 수수료, 기타 부과금 면제, 5년간 소득세 면제, 재투자되는 이윤에 대한 면제, 수출품에 대한 간접세 및 수수료 면제 ▪ 원본회수 및 과실송금 보장(1년 단위로 당국의 허가를 받아야 함) ▪ 부동산 소유 및 임차 허용 ▪ 현지인 고용 사실상 의무화(2006.1월 현지인 고용 비율 50%로 상향조정) ▪ 투자유치분야 : 농업, 산업, 서비스, 석유정제, 석유화학, 전력, 통신, 부동산, 인프라설비, 관광 등
-------------	---

[모로코] Tanger 자유무역지대 (예시)

■ Tanger 신항만 및 배후단지의 지중해권 주요 거점화

- Tanger 신항만은 지중해권 최대 항구로서 지중해-대서양간 환적화물을 상당량 흡수할 것으로 예상되며, 신항만 배후단지에 자유무역지대를 설립하였고, 대 EU 임가공 및 물류기지로 개발예정.
- 모로코-EU 관세협정, 모로코-미국 FTA 시행에 따라 외국인 투자적지로 각광받고 있음
 - EU와의 지리적 근접성으로 인한 물류비용 절감, 저렴한 인건비, 천혜 기후 조건으로 조업환경이 좋아 동구권보다 우수한 투자적지로 부상하고 있음.
- 주변에 관광휴양 인프라를 조성하여 EU의 관광휴양 인구, 은퇴연금생활자 및 비즈니스맨 유치
- Tanger 자유무역지대 설립과 연계한 물류단지로서의 입지 확보 노력
 - Tanger를 포함한 Agadir, Casablanca, El Jadida 등의 주요항만을 정비하여 대서양, 지중해 권의 해상운송 비중 강화하고 육상운송 연계한 Tanger-Casa 구간 TGV 착공(2010) 예정이며, 카사블랑카 이북에 집중되었던 운송망을 카사블랑카 이남으로 확대하여 전국의 균형있는 발전 도모 위해 노력중임.

3. 주목되는 주요 정부정책

가. 공기업 민영화 정책

- 알제리는 공기업 민영화를 위한 “Ordinance No. 95-22 of August, 1995”가 제정된 이후 6년만에 공기업 민영화 본격 추진, 민영화 추진 목적은 경영개선, 신기술 도입, 부채축소 등에 있음.
- 민영화의 절차는 기업의 가치평가를 거쳐 1)주식시장에 상장 혹은 상장된 주식의 거래를 통해 민영화 하거나 입찰을 통해 진행되고, 2)때로는 국가와 투자자간 직접 협상을 통해 조건 결정 3)사전에 결정된 가격에 일반에 공개하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음.
- 모로코는 70여개 공기업에 대해 매년 10개 정도 민영화를 추진하고 있으며 공기업 민영화를 통한 관련 산업 발전 및 외국기업 매각을 통한 무역적자 보전 효과를 거두고 있음.
- 통신 분야의 경우 독점기업의 Maroc Telecom의 민영화를 통해 통신 산업의 급속한 성장을 실현하였고, 외국기업에 매각한 공기업 민영화 수입은 2006년 기준 약 90억불 수준임.
- 튀니지는 1987년 베알리 대통령 취임 이후 자유시장원리에 입각한 경제체제 채택, 2006.10월 기준 총 203개 공기업이 민영화하였으며 분야별로는 공업부문이 39.4%, 서비스 52.2%, 농수산부문이 8.4%임.
- 공기업 민영화 재원은 중앙은행 중기투자금융지원, 유럽투자은행의 벤처기업지원금융, 유럽-지중해 협력프로그램(MEDA)의 민영화지원 프로젝트에 의한 EU의 무상원조(1천만불)임.
- 리비아는 2000년부터 공기업 민영화를 추진, 2003.9월 민영화 대상 공기업 360개사를 발표하고 2008년까지 민영화를 완료할 계획임(2007년까지 25%달성)
- 공기업이 주식회사로 전환, 증권거래소를 통해 공매하여 공기업 직원들에게 우선적으로 배분하고 여유분은 일반인에게 매도하는 방법으로 민영화 추진

- 제철, 은행과 같은 큰 규모의 공기업은 외국기업과의 합작투자 프로젝트를 통하여 민영화를 추진하고 있으며 외국기업의 주식한도는 총 자본금의 65%로 제한하고 있음.

나. 제조업 육성 정책

- 알제리 정부는 제조업 비중 확대를 목표로 2005~2009년까지 총 1,300억불을 투자할 계획이며, 발전 및 전기부문, 제약, 엔지니어링 및 자동차, 식품가공, 석유화학 및 비료 등의 산업을 집중 육성하고 있음.
- 모로코는 수출기반 확대를 위해 전략적으로 제조업을 육성하고 있으나 아직까지는 섬유부문을 비롯, EU의 하청이 대부분임. 향후 화학, 플라스틱, 농산물가공 분야가 성장을 주도할 것으로 전망되며 대외수출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임. (하청 업체수 1,800개, 종사자 약 21만 명)
- 튀니지는 1인당 GDP는 3,250불 수준으로 아프리카의 상위에 속하는 중진 개도국이라 할 수 있으며, 지속적인 경제개발계획의 추진에 힘입어 제조업 비중이 증가하고 있음.

다. 사회 인프라 투자 확충

- 알제리는 막대한 원유재정 수입을 바탕으로 2005-2009년간 약 1,440억불 규모의 인프라 건설을 위한 대규모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으며, 정보통신, 농수산업, 주택분야를 경제 정책 3개 역점분야로 선정하였음.
- 모로코는 건설부문에서 매년 10~15%의 성장세와 함께 시멘트, 철강, 콘크리트 분야도 함께 발전하고 있으며 향후 10년간 매년 9%의 전력 소비 증가를 예상하고 이에 대비한 발전소 건설 및 전력기자재 구입을 확대하고 있음.
- 리비아는 사회 인프라 확충에 1,234억불 투자를 계획하고 있으며, 주택, 학교 신축, 상하수도 처리시설 등을 포함한 사회 인프라 프로젝트 확충에 5년간에 걸쳐 투자할 예정임.
- 분야별 소요예산은 상하수도 처리, 학교 및 주택 신축에 488억불, 통신 분야의 보수 및 확충에 103억불을 투자할 계획임.

III. 산업구조 및 외국기업 진출 유망분야

1. 마그레브 4개국 산업구조 및 특성

- 마그레브 국가들은 자원형 저개발 국가로 자원(석유, 천연가스, 관광자원 등) 의존적인 경제 구조를 가지고 있으며, 아직까지 농업 및 관광산업의 비중이 높은 반면, 제조업 기반이 미약하고, 대외 경제에 있어서는 EU 국가에 대한 높은 의존도를 보이고 있음.

〈국가별 산업구조〉

국가	산업구조(비중%)	주요 보유자원(확인매장량)
알제리	▪ 석유 및 가스(45.1) ▪ 서비스(19.3) ▪ 공공 행정(8.6) ▪ 농업(7.7) ▪ 제조업(5.2) ▪ 기타(14.1)	▪ 석유 : 122억배럴(세계 14위) ▪ 천연가스 : 4.5조m³(세계 8위)
모로코	▪ 서비스업(32.3) ▪ 농수산업(15) ▪ 제조업(17.6) ▪ 상업(19.4) ▪ 공공행정(13.3)	▪ 인광석: 110억톤(세계 3위)
튀니지	▪ 서비스(43.2) ▪ 비제조업(14.0) ▪ 농수산업(11.5) ▪ 제조업(19.2) ▪ 기타(12.1)	▪ 석유 : 3억배럴 ▪ 천연가스 : 1,000억m³(추정) ▪ 인광석 : 30억톤(추정)
리비아	▪ 농업(2.8) ▪ 오일 · 가스(70.5) ▪ 건설(3.2) ▪ 호텔, 식당(5.2)	▪ 석유 : 391억배럴(세계 8위) ▪ 천연가스 : 1.5조m³(세계 1%)

자료원 : EIU, 리비아 통계청(2005년자료) 등 종합

□ 알제리

- 자원 의존적 경제 : 알제리는 아프리카의 3위의 원유 매장량(세계 14위) 및 2위(세계 8위)의 천연가스 매장량을 보유한 자원부국으로 석유 및 가스가 차지하는 경제적 비중이 지나치게 높아 알제리 경제를 좌우하고 있음.
- 석유산업은 수출의 95%, 국가 재정수입의 70%, 그리고 국내총생산(GDP)의 45% 이상을 차지하며 알제리 경제를 지탱하고 있음.
- 기타 금·철·인광석 등의 생산도 활발하고, 고원지대에는 태양에너지가 풍부함.

- 제조업 : 낙후된 제조업³⁾은 알제리의 생산 및 고용에 대한 기여도가 낮고, 생산성도 낙후되어 고용창출 및 경제성장에 큰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 2006년 알제리 전체 노동인구 1,011만명 중 87.8%인 887만 명이 고용인구이며 이중 제조업 종사자는 14.3% 수준인 126만명으로 나타났고 실업률은 12.3%로 높은 수준임.

□ 모로코

- 자원 : 모로코는 인광석 자원이 풍부하여 국제 광물가격 상승에 따라 2007년 인광석 제품 및 인광석 광물 수출이 각각 4.4%, 7.8%의 성장세를 보임.
- 농업분야 : 전체 인구의 약 50%가 농업에 종사하고 있으나 GDP 기여도는 32.3%로 낮은 수준이며 농업의 특성상 강수량이 농업소득에 지대한 영향을 끼치고 있어 관개시설 확보에 정부 보조금이 지급되고 있음.
- 수산업분야 : 세계 주요 어장 중 하나로 아프리카, 중동 지역내 최대 수산물 생산, 수출국임.(주로 문어, 오징어, 정어리, 멸치, 대구 등 수출)
- 관광분야 : 주요 수입원 중 하나로 2007년중 관광객 7백만명, 관광 수입 70억 불을 돌파하였고, 2010년 관광객 1천만 명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음.
- 북부지역은 지중해성 기후로 일조량이 많으면서 건조하고, 기온이 높지 않아 관광휴양지로 각광 받고 있으며 특히 EU로부터 상당수의 휴양인구 및 은퇴 인구가 유입되고 있음.

□ 튀니지

- 관광분야 : 튀니지 GDP의 5.5-6.5%를 차지, 연간 650만명의 관광객 방문으로 인한 수입이 20억불로 총 외화수입의 12%를 벌어들이고 있고, 직간접적으로 약 27,000개의 일자리를 창출해 내고 있음.

3) 1980년대 중반 공업화를 성공적으로 추진하였으나 1990년대 들어 지속된 내전으로 성장발판을 마련하지 못하였고, 또한 2005년도 EU로부터 수입되는 원자재 및 중간재에 대한 관세 전면폐지 및 장비류, 소비재로 연차적 관세인하 및 철폐가 진행되면서 제조업 발전을 저해하고 있음.

- 농업분야 : 16% 인구가 종사하고 있는 분야로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비슷한 수준으로 생산성이 높다고 할 수 있음.
- 석유분야 : 석유 생산은 채산성 부족으로 쇠퇴하는 양상을 보이다가 최근 고유가로 채산성이 확보되자 다시 활기를 띄고 있으며 2007년 석유 생산량 기준 에너지부분 무역적자를 탈피할 수 있는 수준으로 회복됨.

□ 리비아

- 자원 의존적 경제 구조 : 석유·가스가 장악하고 있으며 2000년 석유분야의 GDP 점유율은 39%에 불과하였으나 경제 제재 해제 후 GDP 점유율이 급속히 증가하여 2006년 리비아 수출의 98%, 정부 수입의 93%를 차지하였으며 리비아 GDP의 79%를 점유하였음.
- 경제제재 해제 이후 석유·가스의 GDP 점유율이 증가하는 반면, 제조업과 농업분야의 GDP 점유율은 2000년 5%, 8.1%에서 2006년 1.2% 그리고 2.2%로 각각 추락하였음.
- 관광분야 : 리비아 정부는 관광분야의 성장 잠재력에 주목하여 관광산업을 전략분야로 지정하여 집중 육성할 계획임.
- 1995년 56,000명에 불과한 외국인 관광객이 2004년 146,000명으로 증가하였으며 현재 건설 중인 트리폴리 신공항, 국제적 규모의 신규 호텔 건설, 리조트 프로젝트가 완성되면 리비아의 관광산업이 크게 활성화 될 것으로 전망됨.
- 농업분야 : IMF에 의하면 2004년 기준 농업분야가 리비아 전체 노동력의 7%를 차지하고 있으나 최근 석유 수입의 증가에 따라 중요도가 감소하면서 수입국으로 전환되었음.

〈2006년 마그레브 4개국 주요 교역대상국 및 교역품〉

구 분	알제리(2006)	모로코(2006)	튀니지(2006)	리비아(2006)
총 수출액	54,740 백만 달러	11,500 백만 달러	11,508 백만 달러	36,377 백만 달러
총 수입액	22,335 백만 달러	22,462 백만 달러	14,851 백만 달러	13,628 백만 달러
주요 수출국 (비중%)	미국(26.8) 이태리(16.7) 스페인(9.2) 프랑스(8.6)	프랑스(21.4) 스페인(20.5) 영국(4.9) 이탈리아(4.7)	프랑스(29.7) 이태리(21.0) 독일(8.8) 스페인(5.1)	이탈리아(37.4) 독일(14.8) 스페인(7.8) 프랑스(6.2)
주요 수입국 (비중)	프랑스(23.9) 이태리(9.3) 스페인(9.2) 독일(6.3)	프랑스(17.4) 스페인(13.4) 사우디(6.9) 중국(6.8)	프랑스(27.8) 이태리(24.3) 독일(10.5) 스페인(5.2)	이탈리아(14.2) 독일(5.9) 중국(5.7) 터키(4.7)
주요 수출품 (비중)	탄화수소(97.9) 반제품(1.4) 원자재(0.4) 자본재(0.1)	섬유(20.5) 인광석(7.8) 인산(5.0) 밀감류(2.8)	섬유(28.9) 전자제품(15.3) 석유&관련제품(13.2) 가죽 제품(4.7)	석유(98.0)
주요 수입품 (비중)	자본재(35.9) 반제품(20.8) 식품(15) 소비재(13.1)	반제품(25.0) 자본재(23.8) 에너지제품(22.7) 소비재(20.8)	섬유(14.3) 석유&관련제품(14.5) 전자제품(13.6) 기계류(11.6)	기계·차량 원자재 및자본재 농축산물 소비재

주)수출은 FOB기준, 수입은 CIF 기준, 리비아는 통계자료 불충분
 자료원 : EIU, "Country Report 2007"

2. 외국기업 진출 유망분야

□ 알제리

- 1990년대 10여년간의 내전으로 파괴 혹은 낙후된 인프라의 현대화를 추진하고 있으며 건설 및 기자재 분야에 대한 진출이 유망함.
- 풍부한 석유·가스 자원에 대한 부가가치 제고를 위해 석유화학 산업을 육성하고 공업화를 추진하고 있으며 알제리 국영 석유가스공사인 Sonatrach과 외국기업간 협작을 통한 석유화학공업 발전전략을 추진 중임.

〈진출 유망 품목〉

유망분야	내 용
건축자재	▪ 낙후된 주택 및 도로, 항만, 공항, 철도 등 대규모 인프라 구축사업 추진에 따라 시멘트, 철강 알루미늄 등의 건축자재 수요 증가 ▪ 알제리 국내 저렴한 석유, 가스 및 전기가격을 활용한 제품생산 및 내수판매, 수출 가능
석유화학부문	▪ 국내 저렴한 석유, 가스 가격을 활용한 비료 등 각종 석유화학 제품에 대한 진출이 유망 ▪ 현지의 저렴한 자원을 활용한 제품생산 및 내수판매, 수출 가능
기타	▪ 전기부문, 제약부문, 엔지니어링 및 자동차부문, 식품가공부문에 대한 직접투자 유망

□ 모로코

- 관광휴양지, 신도시 건설, 도로 건설 등 건설경기 및 인프라 구축이 활성화 되고 있는 추세로 한국산 중장비 및 부품에 대한 인식이 좋고, 각종 건설 분야에 대한 한국 업체의 참여 가능성이 높음.
- 한국산 자동차의 시장점유율 확대에 따라 부품 수요 증가가 예상되며, 향후 10년간 연 9%의 전력수요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전력설비 및 기자재 분야 진출이 유망함.

〈진출 유망 품목〉

유망품목	내용
자동차 및 부품	▪ 한국산 자동차의 시장점유율 확대에 따라 부품 수요 증가 ▪ 높은 가격경쟁력과 향상된 품질로 판매 신장률이 연 20% 초과
전력설비 및 기자재	▪ 긴급한 프로젝트로 화력발전소가 있으며, 풍력, 태양광 등 신재생 에너지 관련 프로젝트가 증가
건설 중장비 및 부품	▪ 건설경기 및 인프라 구축이 활성화 ▪ 관광휴양지, 신도시건설, 도로 등 인프라 구축 프로젝트 다수
보안장비	▪ 신흥 주거지 및 현대식 사무실 증가에 따라 지문인식기 등 첨단 보안장비에 대한 수요 증가 추세
화학원료	▪ 생활수준 향상 및 소비증가, 제품의 다양화 등으로 식품, 유통, 화학, 자동차 등의 수요 증가에 따른 화학원료의 수요도 증가
기계설비	▪ 제조업의 발전을 위해 기계설비에 대한 관세인하, 보조금 지원 등의 도입 장려로 일반산업기계에 대한 수요가 증가

□ 튀니지

- 과거 수년간 연 5~6%의 착실한 경제 성장을 실현하였으며 1인당 국민소득도 높은 편이므로 가전제품 및 정보·통신기기분야에 대한 제조 진출이 유망함.
- 단순 조립단계의 제품 진출이 유망하며 유럽 및 인근 북아프리카 국가로의 재수출에 유리한 조건임을 감안, 재수출품 위주의 진출이 유망함.

〈진출 유망 품목〉

유망분야	내용
제조업	▪ 전기전자, 통신, 자동차부품, 의류, 플라스틱 포장용기 등 제조 분야의 단순조립단계 진출 유망
건설업	▪ 정부가 추진하는 통신망, 고속도로, 항만, 공항 등 사회간접 자본시설에 합작투자 형태로 참여 유망
관광업	▪ 유럽인들은 물론 아시아인들의 잠재적 관광 대상지이므로 호텔투자, 관광분야에 진출 유망
의료기기	▪ 의료기기는 관세율이 0~17%로 여타품목에 비해 저렴함. ▪ 포장 기계류는 대부분 수입에 의존(비교적 저가인 이태리산이 주종)하고 있어 관세가 없고 튀니지의 음료수 포장이 테트라팩 및 PET 포장형태로 전환되고 있어 진출이 유망함.

□ 리비아

- 2008년 개발예산에 283억불이 배정되어 각종 사회 인프라 프로젝트가 본격 추진될 것으로 전망되며 이에 따른 건축기자재 제품에 대한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 특히 시멘트 분야에 대한 수요 폭주로 2010년까지 1,300만톤, 2020년 1,600만톤의 시멘트를 증산할 계획이며 또한, 기존 생산라인의 현대화 및 신규 시멘트 생산 라인 증설 등의 생산 플랜트 정책을 추진 중임.
- UN 및 미국의 경제제재 해제(UN : 1999년, 미국 : 2004년)로 이후 관광분야가 신개척 분야로 떠오르고 있어 호텔 신축, 리조트 건설 분야가 새로운 외국인 투자처로 부상하고 있음.

- 2015년까지 연간 외국인 관광객 10백만명 유치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2015년까지 130억불의 외국인 민간 투자를 예상, 이중 30억불은 향후 5년내 외국인 투자가 유치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음.
- 리비아 정부가 제조업 육성을 위해 공공부문의 민간 이전을 적극 장려하고 있으며 은행 저리융자, 수입관련 세금 면제 등 각종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음.

〈진출 유망 품목〉

유망분야	내용
건설분야	▪ 미국의 경제제재 이후 인프라 구축이 활발히 추진됨에 따라 공항 및 항만, 발전소, 상하수도, LNG 및 정유공장시설, 인공대수로
시멘트	▪ 각종 건설 프로젝트 추진에 따라 시멘트의 수요가 폭주하고 있어 시멘트 분야 진출 유망(연간 340만톤의 시멘트가 부족함.) ▪ 시멘트 생산을 위한 원료를 쉽게 구할 수 있고, 리비아에 시멘트 생산 업체가 있어 진출 용이함.
관광분야	▪ 관광분야를 전략산업으로 선정하여 각종 호텔 신축 등을 추진 ▪ 관광객 증가에 대비하여 신규 항공기 구매, 신공항 건설, 지방 공항 신설, 확장 등 향후 10년간에 걸쳐 150억불 투자할 계획임.
중소형 제조 공장	▪ 2004년 이후의 국영기업의 비중 감소 및 일반 소비자의 소득 증가에 따라 음료수, 식품가공 등 중소형 제조 공장의 수요가 증가 추세임. ▪ 기타 중소형 제조 플랜트 분야는 의료(일회용 주사기), 식품(캔 음료), 식품가공(치킨가공), 포장재(플라스틱병, 일회용 식품용기), 건설기자재(샌드위치 판넬, 창틀), 자동차(자동차 정비) 등임.

IV. 경쟁국 진출 동향 및 진출 성공사례

1. 경쟁국 진출 동향

- 마그레브 지역에 EU 국가들의 진출이 두드러지며 특히 프랑스는 자원은 물론, 제조업, 관광분야 등 다양한 분야에 투자하고 있는 반면, 동일한 종교 언어를 공용하는 중동 국가들이 최근 오일머니에 힘입어 마그레브 국가에 진출하고 있으며 특히 관광분야에 대한 투자 비중이 높음.
- 중국 기업은 전자제품 및 자동차 등 소비재 중심의 투자에서 건설 및 자원분야로 투자 영역을 넓혀 나가고 있고, 러시아 기업의 경우 천연가스 분야를 중심으로 진출이 활발하며 건설분야로 영역을 확대해 가고 있음.

□ EU

- 마그레브 국가는 유럽 열강인 프랑스, 이탈리아의 식민통치를 겪으면서 프랑스어를 공용으로 사용하는 등 역사·문화적 이질감이 적고, 지정학적으로 근접해 있다는 이점을 활용해 EU 기업들의 적극적으로 투자진출을 하고 있음.
- EU 국가 중 마그레브 국가의 최대 투자국은 프랑스로 통신, 건설, 서비스, 기계, 제조, 항공, 자동차 등 거의 모든 분야에 진출하고 있으며, 그 외 스페인, 독일, 이탈리아, 영국 등의 국가가 활발히 진출하고 있음.
- 2006년 프랑스의 대알제리 투자 순위는 5위에 머물지만, 중동국가가 1개의 대형 프로젝트에 투자하는 성향을 보이는 반면, 프랑스는 22개의 투자건수를 기록해 다양한 분야에서 현지 합작 파트너와의 기초 제조업, 중소형 합작투자 형태의 투자 진출이 활발함.
- 모로코 진출 외국기업 중 프랑스계 기업이 50% 차지, 스페인(15%) 등 기타 EU 국가를 합할 경우의 비중은 72%에 달함.

- 튀니지의 경우 프랑스를 포함한 EU와의 교역이 전체교역의 77%를 차지하며 주요 투자분야는, 에너지, 제조업, 농업 등이며 2007.3월 단독 또는 합작형태로 약 2,700개의 외국인 기업이 진출해 있음.
- 프랑스는 약 1,000개의 기업이 10만명의 튀니지 인력을 고용하고 있고, 이태리는 600개의 기업이 4만 6천명, 독일은 250개 기업이 3만명을 고용하고 있음.

□ 미국

- EU가 다양한 분야에 투자하는 반면, 미국 기업의 투자는 오일 및 가스 분야에 집중되는 양상을 보임.
- 리비아 석유분야에 진출이 활발한데, 2004년 경제제재 해지 이후 최초로 실시된 2005년 유전광구 입찰에서 11개 미국 기업이 수주하였음. 대표기업으로는 2005년 진출한 Marathon, Hess, ConocoPhilips, 2007년 진출한 ExxonMobil, Occidental 등이 있음.
- 2005년 알제리 유전 및 가스에 41억불을 투자, 알제리 총 FDI(stock기준) 49%의 비중을 차지하였고 대표 진출 기업으로는 BP, ConocoPhilips 등이 있음.
- 미국은 모로코와 FTA를 체결, 지리적, 경제적으로 EU와 밀접한 관계에 있는 북아프리카의 요충지라는 점을 중시하고 있으며, 많은 기업이 모로코에 진출하였음.

□ 중국

- 중국은 국가별 상위 5개 투자국 순위에는 속해 있지 않으나 대 마그레브상품 수출을 활발히 하고 있으며 진출 영역을 건설 및 광구개발로 확대해 나가고 있는 추세임.
- 중국은 1958.12월 알제리가 임시정부의 형태로 대 프랑스 독립투쟁을 할 때 외교관계를 수립하여, 정치적으로 유대가 돈독하며 이를 바탕으로 자원개발, 인프라 구축, 제품교역 등 각 분야에 활발하게 진출하고 있음.

- 2007년 알제리의 수입에서 중국이 8.6%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그 외 광구 개발권 획득('03.12월 2개, '04.7월 3개), 남부사하라 대수로관 매설 프로젝트(총 공사비 10억불), 동서고속도로(총 공사비 110억불) 중부 169km 및 서부 359km 구간 건설수주, Adrar Refinery 프로젝트(정유시설에 대한 외국기업 최초 투자) 등으로 영역을 넓혀가고 있음.
- 모로코의 경우 아직까지 소비자의 구매력이 낮은 관계로 거의 모든 분야에서 중국 상품을 구입하고 있으나 정밀성, 안전성, 내구성을 요하는 부분에서는 중국산 사용을 기피하는 현상이 두드러지고 있음.
- 또한 중국은 모로코 통신업체인 WANA에 통신장비 및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자동차 생산 공장도 건설 예정임.
- 튀니지의 경우 전자, 통신, 자원 등 다양한 분야에 투자하고 있음.
- Haier사가 현지 업체와 합작으로 가전제품(에어컨) 조립 생산 및 판매를 하고 있고, 2004년 중국 IT기업인 Huawei사가 튀니지 인터넷 사업에 진출한 바 있음. 또한 2006년에는 남부 유전 및 가스전 개발 탐사권을 중국 CNPC가 취득해 현재 개발 중임.
- 중국은 특히 중동아프리카 및 EU 시장 공략을 위한 생산기지 확보를 위해 튀니지 남부에 중국기업 전용 산업단지 설치를 위한 프로젝트를 튀니지 정부와 협의 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며 대상 업종은 자동차부품, 섬유, 전기/전자, IT, 경공업분야 등임.

□ 중동국가

- 최근 사우디, UAE, 쿠웨이트 등의 오일머니를 자본으로 하여 수익성 높은 프로젝트를 찾아 마그레브 국가에 대한 투자를 높이고 있으며 모로코에 지주회사를 두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음.
- 알제리의 경우는 이집트 Orascom(알제리 제2 이동통신사업자), 쿠웨이트 Watanya(알제리 제3 이동통신사업자) 등이 통신 분야에 대형투자를 진행하고 있고, 북아프리카 기간산업 분야의 초대형 프로젝트인 알루미늄 플랜트

(약 50억불/연산 70만톤) 건설에 UAE 기업이 알제리의 Sonatrach과 합작으로 투자하고 있음.

- 튀니지의 모로코 관광부분에서 중동국가의 자본이 대거 유입되고 있으며 특히 튀니지의 경우 리비아, 쿠웨이트의 투자가 활발하고, 서비스 및 기타부문의 경우 터키, 쿠웨이트 UAE 등의 중동국가의 투자가 활발함.

□ 러시아

- 알제리와 천연가스 부문 전략적 제휴 및 알제 철도망 복구공사 참여
 - 세계 천연가스 수출의 34%를 차지하는 러시아(26.8%)와 알제리(7%)가 천연가스 카르텔(Gas OPEC)을 위한 제휴를 협의 중이며, 유럽 천연가스의 65%를 공급하는 Gazprom과 Sonatrach간 MOU를 체결(2006.8월)로 유럽 국가들의 반발을 사고 있음.
 - 러시아가 알제리 철도 현대화 계획 1단계에 참여하여 수도권 지역 철도망 복구공사를 하기로 결정됨(공사비 : 3억불, 공기 : 3년)
- 리비아 가스시장 진출
 - 2008.4월 러시아의 Gazprom사와 리비아 NOC(국영석유공사)사는 합작투자회사를 설립키로 합의하여 지질탐사, 개발 및 생산은 물론 판매, 석유 가스 부문의 인프라 개발업무까지 맡게 될 것으로 알려지고 있음.

〈마그레브 4개국별 투자국 및 투자액〉

(단위 : 백만 불, %)

국가	No	투자국	투자액(비중)		산업부문	투자액(비중)
알제리 2006	1	UAE	939(31.8)	1	제조업	2351(67.4)
	2	스페인	802(27.2)	2	무역서비스	589(16.9)
	3	사우디	443(15.0)	3	관광	348(9.9)
	4	이집트	343(11.6)	4	운송	85(2.4)
	5	프랑스	244(8.3)	5	보건의료	70(2.0)
모로코 2006	1	프랑스	1,024.4(34.6)	1	제조업	987(35.5)
	2	스페인	852.0(28.8)	2	관광	901(32.4)
	3	벨기에	296(10.0)	3	부동산	452(16.3)
	4	쿠웨이트	119.9(4.0)	4	금융	340(12.2)
	5	독일	111.4(3.8)	5	무역	98(3.5)
튀니지 2007	1	영국	621(39.9)	1	에너지	1022(65.6)
	2	미국	168(10.8)	2	제조업	365(23.5)
	3	이태리	136(8.7)	3	서비스 및 기타	110(7.1)
	4	프랑스	121(7.7)	4	관광 및 부동산	54(3.5)
	5	스웨덴	96(6.1)	5	농업	6(0.4)
리비아 '08.2월	1	U.A.E.	847(23.8)	1	관광& 숙박	1,593(44.9)
	2	영국	765(21.5)	2	건설	1,185(33.4)
	3	바나마	280(7.9)	3	식품산업	190(5.3)
	4	스위스	266(7.5)	4	Eng. Industries	180(5.1)
	5	말타	254(7.2)	5	의료서비스	115(3.2)

*리비아는 오일분야 제외한 수치임.

자료원 : UNCTAD, "World Investment Directory Africa 2007" 및 각국 투자개발청 자료 종합

2. 진출 성공사례

가. 외국기업 성공사례

□ 리비아 진출, 사이프러스의 Olen Holding사

- 리비아 시장진출 결정에 앞서 3개월 동안 리비아시장을 면밀히 조사하여 리비아 시장에 우유에 대한 수요가 많은 점, 리비아에서 생산한 제품이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는 점, 리비아 정부로부터 각종 투자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는 점 그리고 세금 없이 다른 나라로 수출할 수 있는 이점을 활용, 현지 진출에 성공한 경우로 평가됨.

- 리비아 인구의 98%가 커피나 바나나 등의 음료에 우유를 타서 마시기 때문에 여름과 겨울에 우유에 대한 소비가 크게 증가하는 점을 착안
- 1일 우유 수요는 (1리터 팩 기준) 550만 팩으로 수요는 많으나 리비아 우유 생산업체는 Al Nassem Co, Judi Co사 등 2개사에 불과하여 국내산이 전체 수요의 30%, 수입산이 35%를 차지하여 추가 수요는 35%에 달하고 있음.
- 리비아의 인건비는 저렴하여 국내산이 수입산에 비해 경쟁력 확보
- 더욱이 리비아에서 생산한 우유는 튀니지, 알제리, 니제르, 차드, 수단, 모로코 등 6개국에 수출 가능하고, 또한 리비아, 알제리, 튀니지 및 모로코 사이에는 관세가 없는 이점이 있음.
- 또한 리비아 정부는 생산에 필요한 원부자재, 기계류 수입에 대한 모든 세금 면제, 소득세 면제 등 각종 투자 인센티브 혜택을 부여

□ 튀니지 진출, 이집트의 오라스콤 텔레콤(www.orascomtelecom.com)

- 튀니지 사업자명의 선정과정에서 Tunisiana 라는 이름으로 소비자들에게 친근감과 함께 튀니지를 존중하는 듯한 느낌의 심리적 광고 효과, 외국 기업임에도 현지에서 쉽게 정착해 성공할 수 있는 기틀 마련
- 2002년 5월 튀니지 정부로부터 GSM 이동통신사업자로 선정되어 튀니지아나(www.tunisiana.com)라는 이름으로 시장공략
- 2007년 매출고는 6억 8200만 디나르에 영업이익은 1억 2800만 디나르로 매우 성공적인 투자 케이스로 평가됨.

나. 우리기업 성공사례

□ 알제리 진출, LG전자

- 현지 합작회사와의 계약을 체결 현지 업체에 반제품 공급 및 기술 지도를 통하여 신뢰관계 형성

- LG전자는 1995년부터 ENIE사(국영기업)에 RV, Audio 및 Video 공급계약으로 신뢰를 형성, ENIE사가 LG 공급 반제품과 기술지도(이전포함)로 완제품을 생산토록 하여, 알제리 내수시장 수요량의 상당량을 공급하고 있음.
- 또한, 1998년 ES SALEM사(민간기업)를 발굴, 전기(RAC, REF 등) 및 IT (MNT, CD-R 등) 분야에 반제품 공급 및 기술지도를 통하여, ES SALEM사가 완제품을 생산토록 하여 알제리 시장 개척에 성공했다는 평가를 받음.
- LG전자의 2002년 알제리 내수시장의 TV 57%, RAC 25%, MNT 33%를 공급, 동 3개 품목 시장 점유율 1위를 기록하였으나 2006년은 중국제 가전제품의 저가 공략으로 가전 품목별로 20~30%의 시장 점유율만 유지

□ 튀니지 진출, 제일기획

- 문화콘텐츠 사업분야에서 유럽 기업들과 경쟁하여 가격 대비 및 품질 면에서 충분히 경쟁력이 있다는 평을 받고 있음.
- 제일기획은 2004년 아프리카스 네이션스컵 축구대회 개막식 대행 계약을 체결 하여 계약금 300만 달러로 범아프리카권 이벤트 행사를 대행한 바 있음.
- 지금까지 구미 광고 대행사들이 독점했던 이벤트 콘텐츠 수출에 한국 기업이 뛰어든 좋은 사례로 평가됨.

V. 우리기업 성공 진출 방안

1. 경제 통합, 유리비아 등장 움직임에 맞춘 장기적인 진출 전략 수립

- 마그레브 3국은 EU와 제휴협정을 체결하고 단계적인 관세철폐를 거쳐 2012년(모로코), 2017년(알제리) EU시장 체제로 편입될 예정이며, 장기적으로는 서유럽과 아랍국가간 경제·문화 통합체제의 유라비아의 등장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는 바, 마그레브 지역에 투자와 수출을 종합적으로 연계하여 추진할 뿐 아니라, 장기적으로 우리기업의 유럽·중동·아프리카지역의 수출전진기지로 마그레브 국가의 진출을 고려해 볼만함.
- 튀니지는 2008.1월 EU와 상품분야에 대한 FTA를 체결하고 무관세 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므로 EU 진출을 염두에 둔 진출지로 유리한 조건임.
- 모로코는 미국과의 FTA를 체결하여 이로 인해 모로코내 자동차 및 IT분야에서 한국제품의 경쟁력이 약화될 것으로 전망되므로 단기적으로는 이 지역에 대한 수출확대 및 중장기적으로 유럽시장진출 및 대미수출을 위한 생산기지로서 투자진출을 검토해 볼만함.
- 수입목적이 투자진출과 관련된 경우 자본재와 부품에 대해 2.5% 및 10%의 관세율을 선택적으로 부과하고 있음. 모로코에서 생산제품이거나 유사제품인 경우 최고 40%까지의 고율의 관세가 적용됨.

2. 마그레브 정부의 경제개발 계획 및 제조업 육성방안 활용

- 공기업 민영화 정책 추진시 자국의 무역적자 보존을 위해 외국기업에 매각을 허용하고 있으므로 유망 공기업 인수 방안을 활용하거나 정부의 지원 인센티브가 많은 제조업 분야에 진출하는 방안을 검토해 볼만함.
- 알제리는 공기업 민영화 부문인 철강, 통신, 전자, 의료, 건설 및 건설장비, 운송기기, 광물분야의 경영권 인수 혹은 지분참여를 활용한 진출 역시 유망

하므로 이를 위해서 각 부문별 SGP(공기업 자산관리공사)와의 지속적 관계 수립 및 민영화 대상 공기업 공개입찰에 참여해 볼 수 있음.(관심대상 대형 공기업에 대해서는 MPPI(민영화 투자 유치부)를 통한 개별적 공기업 인수 의사 제출도 검토할 필요 있음.)

- 리비아 정부의 국영 제조업 공장 입찰, 혹은 중소형 제조업 분야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을 하고 있는 만큼 이 분야에 대한 진출을 고려해 볼 만함.
- 투자업종에 대한 특별한 제한은 없으나, 과실송금을 비롯한 각종 인센티브나 제반 투자여건은 사실상 투자 위원회에서 케이스별로 결정하고 있어 투자 신청시 협상에 따라 제한과 인센티브가 달라질 수 있음.
- 알제리 정부는 저렴한 석유 가격을 기반으로 석유화학부문을 집중 육성하고자 하고, 우리나라는 전통적으로 석유화학 분야에서 강점을 보여 왔으나 최근의 고유가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바, 우리의 기술경쟁력을 바탕으로 알제리, 리비아 등의 산유국으로의 투자 진출을 고려해 볼 만함.

3. 현지기업 혹은 유럽기업과의 전략적 제휴 모색

- 북부아프리카 지역은 주로 프랑스 등 유럽기업들이 석권하고 있으므로 이들과 경쟁하기 위해서는 다른 후발 유럽국가(스페인, 체코, 포르투갈 등)들과 콘소시엄을 구성하거나 현지 유력 민간기업과의 합작을 통해 경쟁력 확보 가능
- 현대건설의 튀니지 라데스 국립경기장 건설 시 프랑스 업체들의 방해공작을 받았던 것으로 추정되고 있으나 스페인 페로비알사와 콘소시엄을 구성하여 건설사업을 원만히 진행
- 삼성전자의 경우 알제리를 북아프리카 가전시장 진출 교두보로 삼아 2006년 알제리 최대 민영 기업인 세비탈(Cevital) 그룹과 생산설비 및 기술수출 계약을 맺고 연간 TV 20만 대, 냉장고 20만 대, 세탁기 및 에어컨 각 10만 대 규모의 가전제품 위탁생산 체제를 구축하였으며 이를 통하여 지속적인 가전제품 생산설비 및 기술 수출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됨.

4. 건설 및 건설장비 시장 진출

- 외국기업의 진출 지속, 관광객 증가, 경기호조 등에 따른 건설경기 호조가 지속되고 있으며, 특히 관광휴양지 건설 및 신도시 개발, 이에 따른 인프라 구축으로 인해 건설수요가 증대되고 있고 또한 달러화 약세에 따른 대외구매력이 향상되고 있음.
- 최근 이 지역의 주택 및 도로, 항만, 공항, 철도 등 각종 대규모 인프라 구축 사업을 추진 중이므로 한국이 강점을 보여 온 건설 및 건축자재 분야에 대한 적극적인 진출을 고려해 볼만 함.

5. 한국의 압축성장 경험 전수

- 마그레브 국가들이 경제 발전을 위해 성장 모델을 찾고 있고, 또한 현재 그들의 인프라 확충이 시급한 상황임을 감안, 그들이 절실히 필요로 하는 설비지원 및 한국만의 경제 개발의 노하우를 전수해 주고, 우리에게 필요한 석유·가스 개발 프로젝트에 진출하는 방안을 강구해 볼 수 있음.
- 알제리 정부는 막대한 외환보유고를 바탕으로 단순한 SOC 건설지원 보다는 우리나라의 발전 경험에 대한 전수의지가 강하고, 경쟁력 있는 우리 기업의 자국 진출을 통한 산업발전을 기대하고 있으므로 우리기업이 알제리 산업발전 우선 분야에 참여하여 성공방안을 모색하여 지원하고, 우리 기업은 석유·가스 개발에 참여하여 「전략적 동반자관계」를 구축하는 것이 장기적으로는 효과적인 협력 방법임.(2006~2010년간 유전개발에 총 332억불(Sonatrach 74% 및 외국기업 26%) 투자 예상)
- 특히 알제리 정부가 「국토개발 2025」 계획을 세워 균형 있는 국토개발을 추진 중이며, 특히 알제리 정부가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고 있는 사하라 개발 사업에 참여하여 유전지대 인근의 신도시 및 농촌개발 사업에 건설 진출을 통한 에너지·자원 개발 추진할 경우 개발사업 자체의 수익성은 물론 석유·가스 개발에도 긍정적인 영향이 기대됨.

2008년 KOTRA 발간자료목록

● GBR

번 호	제 목	발간일자
08-001	한-EU FTA가 수출/투자유치에 미치는 영향 : 유럽 바이어 및 대한 잠재투자가 설문조사 결과	2008.1
08-002	대중 섬유수입규제 해제와 세계 섬유시장의 변화	2008.1
08-003	일본 소비패턴 동향 및 시사점	2008.2
08-004	주목해야 할 이머징 마켓의 소비 패턴 변화	2008.3
08-005	아세안 주요국 프랜차이즈 산업 분석 및 진출 전략	2008.3
08-006	유럽 그린구매 동향과 진출확대를 위한 키워드	2008.3
08-007	한-GCC FTA 체결에 대한 시각 및 반응	2008.3
08-008	중국의 최저임금 인상 동향과 전망	2008.4
08-009	중동·아프리카 프론티어 시장 유망품목과 성공전략	2008.4
08-010	중남미 보안시장 동향	2008.4
08-011	중국·인도·일본의 아프리카 시장쟁탈전	2008.4
08-012	러시아기업의 해외진출확대에 따른 우리의 대응방안	2008.4
08-013	2008 서남아시아를 주목하라	2008.4
08-014	미국 FDA 통관정책 및 우리 상품 통관거부에 대한 대응	2008.4
08-015	노동계약법 실시조례(초안)의 해석	2008.5
08-016	해외자원개발 피해사례 및 국가별 유의사항	2008.5
08-017	주요국의 서비스장벽 현황과 대응방안	2008.6
08-018	세계 섬유시장변화와 우리 해외생산전략	2008.6
08-019	베트남 경영환경 변화와 대응전략	2008.6
08-020	해외무역관에서 바라본 2008년 하반기 수출전망	2008.6
08-021	중, 하이테크 기술기업 우대혜택 변화와 전망	2008.6
08-022	대중국투자 뉴 트렌드와 시사점	2008.6
08-023	중동 주요국의 제조업 육성정책 및 우리의 진출전략	2008.6
08-024	떠오르는 마그레브 시장, 이렇게 공략하라	2008.6

● KOTRA자료

번 호	제 목	발간일자
08-001	2008년 지역별 진출확대 전략	2008.1
08-002	러시아 투자실무 가이드	2008.1
08-003	중국 최고인민법원 지식재산권 10대 판례집	2008.2
08-004	멕시코 투자실무 가이드	2008.4
08-005	청산매뉴얼	2008.5
08-006	중국지재권대리사무소 디렉토리	2008.5
08-007	중국 유통시장 진출 가이드	2008.5
08-008	EU 현지 기업들의 REACH 대응사례와 시사점	2008.5
08-009	중국 신노동법 下 인력관리 매뉴얼	2008.5
08-010	2007 외국인투자옴부즈만 연차보고서	2008.6
08-011	Foreign Investment Ombudsman Annual Report 2007	2008.6
08-012	북미 유통시장 진출 가이드	2008.6
08-013	중국투자가 심층조사 보고서	2008.6
08-014	말레이시아 투자실무가이드	2008.6
08-015	2007년 북한의 대외무역동향	2008.6

● 설명회자료

번 호	제 목	발간일자
08-001	2008 세계시장진출전략 설명회	2008.1
08-002	2008 세계시장진출전략 비즈니스포럼	2008.1
08-003	2008 세계시장진출전략 설명회 및 비즈니스 포럼 가이드북	2008.1
08-004	한-아세안 FTA순회설명회 (Korean -Asean FTA Seminar)	2008.5
08-005	몽골투자포럼(Mongol Korea Investment Forum)	2008.5
08-006	러시아 우랄시장 설명회	2008.5
08-007	극동 시베리아 개발 프로젝트 설명회 및 상담회	2008.5
08-008	중국 사업환경 변화와 대응전략 설명회	2008.5
08-009	중동 산유국 진출전략 설명회 및 상담회	2008.6
08-010	Global Project Plaza 2008	2008.6
08-011	한일 에너지절약환경 포럼	2008.6
08-012	2008 한중일산업교류회 심포지움	2008.6
08-013	러시아 중앙아시아 진출전략 설명회	2008.6
08-014	2008 한중일산업교류회 심포지움	2008.6
08-015	미국 유통시장 진출전략 설명회	2008.6

작성자

송선근 (트리폴리 무역관)
홍성국 (카사블랑카 무역관)
박범준 (알제 무역관)
문숙미 (중아CIS팀)



Global Business Report 08-024

떠오르는 마그레브 시장 이렇게 공략하라

발 행 인 | 홍 기 화
발 행 처 | KOTRA
발 행 일 | 2008년 6월 30일
주 소 | 서울시 서초구 연곡동 300-9
(우 137-749)
전 화 | 02) 3460-7114(대표)
홈페이지 | www.kotra.or.kr

Copyright © 2008 by KOTRA. All rights reserved.

이 책의 저작권은 KOTRA에 있습니다.

저작권법에 의해 한국 내에서 보호를 받는 저작물이므로
무단전재와 무단복제를 금합니다.

kotra

Korea Trade-Investment
Promotion Agency

CLEAN KOTRA
GREEN KOTRA